

2027
중2-1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1(2) 동백꽃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동백꽃」은 어리숙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와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농촌에 사는 동갑내기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묻는 문제와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를 묻는 문제, 등장인물의 행동을 바탕으로 생각과 심리를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순서와 서술자, 시점을 바탕으로 각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찌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찌었다. 이렇게 멧을 부러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냈을 것이다. 바짝 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뽕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

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알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중략)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깨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주인공과 서술자가 같아 주인공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③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 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경어체를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정답 2개)

- ① 회상을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보다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 ③ (나)는 (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감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다.
- ④ (나) - (가)의 시간 순서는 현재-과거이다.
- 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역순 행적 구성이다.

3. 이 글에 나타난 ‘나’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
- ② 점순이를 좋아하고 있다.
- ③ 평소에 점순이와 친해지려 노력했다.
- ④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모른다.
- ⑤ 점순이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반기고 있다.

4. (나)에서 점순이의 행동에 대해 ‘나’가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가 나한테 말을 걸다니 너무 신난다.
- ② 점순이에게 상냥하게 대답해 줘야겠어.
- ③ 점순이가 말도 정말 예쁘게 하는구나.
- ④ 자기 집이 여유 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 ⑤ 점순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지만 감자는 받아야겠어.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꾸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럴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나)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담 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즈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애다 우리 씨암닭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중략)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뺨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네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5.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설 속 인물이 관찰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 ② 어수룩한 서술자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 ③ 점순이가 행동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전달한다.
- ④ 점순이의 입장에서 사건과 점순이의 심리를 전달한다.
- ⑤ ‘나’와 점순이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알고 있다.

6. ㉠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점순이'는 ㉠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다.
- ② ㉠ 이후에 '나'를 향한 점순이의 괴롭힘이 시작된다.
- ③ ㉠에 대한 '나'와 '점순이'의 생각은 대조적이다.
- ④ '나'의 집은 점순네의 소작인이기 때문에 '나'는 감자를 받지 않았다.
- ⑤ '나'는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옥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옥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 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즈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 놓는다. 즈 집 수탉은 씩 험상궂게 생기고 싸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먼두며 눈같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꼬여 내다가 싸움을 붙인다.

(나)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발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열리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중략)

그러나 한번은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펼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먼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설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먼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은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라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싸움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짜를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어

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낮이 풀리어 기둥 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짙끔 못 하고 막 굶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인 것이 펍 후회가 난다.

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점순이의 행동에 '나'는 점순이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며 통쾌함을 느꼈다.
- ② 점순이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을 때 자기 집 수탉과 '나'의 집 수탉을 싸움 붙였다.
- ③ 닭싸움에서 진 이후에도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닭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 ④ '나'는 '나'의 수탉이 진 이유가 점순이의 수탉이 고추장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⑤ 점순이는 '나'가 두 집의 수탉을 싸움 붙여 반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신의 닭에게도 고추장을 먹였다.

8. ㉡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피가 많고 엉뚱하다.
- ② 집요하고 영악하다.
- ③ 어수룩하고 착하다.
- ④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다.
- ⑤ 똑똑하고 천연덕스럽다.

9. '나'가 ㉠에서 느낀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추장이 효과가 없어서 실망했을 것이다.
- ② 점순네 수탉에게 또 당하여 화가 났을 것이다.
- ③ 수탉이 다쳤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고 슬펐을 것이다.
- ④ 수탉에게 고추장을 더 먹이지 않은 것이 아쉬웠을 것이다.
- ⑤ 점순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약이 올랐을 것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차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꿈쩍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나)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

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얽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10. (가)에 나타난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닭싸움에 눈 깜짝하지 않는 점순이의 모습이 소문과 같다고 생각했다.
- ② 점순네 닭을 죽인 직후 점순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 ③ 점순네 닭을 죽이려 마음을 먹었지만 문득 현실을 깨닫고 죽이지 못했다.
- ④ 점순네 닭을 죽이고 정신이 들자 집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울음이 터졌다.
- 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점순네 닭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11. (가)의 ㉠에 나타난 점순이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갈등을 겪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 ② 예전에는 점순이가 성실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영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③ 예전에는 친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④ 예전에는 야무지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매서운 여우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⑤ 예전에는 마을에서 인기가 많은 점순이가 소문대로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치가 떨린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와 ‘나’가 동백꽃 속에 파묻히는 장면을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동백꽃은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점순이와 ‘나’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하얀 동백꽃 사이로 폭 파묻힌 것을 통해 시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 ⑤ 점순이가 의도적으로 ‘나’의 어깨를 밀어 함께 쓰러진 이유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나’는 눈치가 없고 순진함을 알 수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①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열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 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중략)

②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러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씬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 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쌓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중략)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감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③“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썩근썩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④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중략)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라)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담 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즈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서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중략)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심리와 생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위치한다.
- ③ 점순이네 집이 마름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양반과 천민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④ 사투리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⑤ 나흘 전 사건(나), 현재 사건인(가) 중 현재 사건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에 해당한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정답] ①, ③

(나)는 ‘나’가 회상한 나흘 전 감자 사건이므로 회상을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의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이는 사건은 (나)의 ‘나’가 감자를 거절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다.

- ② (나)는 나흘 전, (가)는 현재 사건이므로 (나) - (가) 순으로 사건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 글은 (나)(과거) - (가)(현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인 액자식 구성에 해당한다. 이 글은 단일 이야기로 액자식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답] ④

어리숙하고 둔한 나는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눈치채지 못하고 기분만 나빠하고 있다.

- ①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부분을 통해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는 점순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있다.
- ③ 평소에 ‘나’는 점순이와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서로 내외하던 사이였다.

- ⑤ “긴치 않은 수작”에서 ‘나’는 점순이를 귀찮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답] ④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에 ‘나’는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낸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거절한다.

- ① “긴치 않은 수작”에서 알 수 있듯 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귀찮아하고 있다.
- ② 나는 귀찮은 마음에 점순이에게 무뚝뚝한 말투로 대답한다.
- ③ ‘나’는 점순이의 말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신을 무시하고 생색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빠 감자를 받지 않는다.

5. [정답]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이 아닌 점순이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 ①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소설 속 인물이 관찰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 ③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가 행동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전달한다.
- ④ 점순이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에서 사건과 점순이의 심리를 전달한다.
- ⑤ ‘나’와 점순이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아는 것은 전지적 시점에 해당한다. 이 글은 ‘나’의 심리는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지만 점순이의 심리는 알지 못한다.

6. [정답] ④

‘나’의 집이 점순네의 소작인이기 때문에 감자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 감자를 받지 않은 것이다.

- ① ‘점순이’는 ㉠으로 인해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하고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② 감자를 거절한 이후에 점순이는 ‘나’를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은 점순이의 괴롭힘이 시작된 계기이다.

③ ‘나’는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순이는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두 인물의 생각은 대조적이다.

⑤ ‘나’가 감자를 받지 않은 일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지금도 점순이가 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7. **정답** ③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씹을 불인 것이 펍 후회가 난다.’에서 알 수 있듯 고추장을 먹인 후에도 닭싸움에서 졌지만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① “대거리 한마디 못 하는 걸 생각하니”에서 ‘나’가 점순이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지 못해 분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점순이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을 때가 아닌 없을 때 자기 집 수탉과 ‘나’의 집 수탉을 싸움 붙였다.

④ (나)의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씹을 불인 것이 펍 후회가 난다.”에서 ‘나’는 ‘나’의 수탉이 진 이유가 ‘나’의 수탉이 고추장을 덜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쓰지 살을 찌푸렸다.”를 보면 점순이는 ‘나’가 닭싸움을 붙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지 않았다.

8. **정답** ②

어떻게든 ‘나’의 수탉을 꺼내 닭싸움을 붙이려는 점순이의 행동에서 영악하고 집요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③, ④, ⑤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다.

9. **정답** ③

“고추장을 좀 더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씹을 불인 것이 펍 후회가 난다.”에서 ‘나’는 수탉을 걱정하는 것보다 수탉이 졌다는 사실에 실망과 허

탈함을 느끼고 있다.

① ‘나’는 고추장을 많이 먹이면 닭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점순네 수탉을 완전히 이기지 못해 실망을 느끼고 있다.

② 점순네 수탉에게 또 당했다는 사실과 점순이의 웃음소리에 약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④ 수탉에게 고추장을 더 먹이지 않은 것에 아쉬움과 후회를 느끼고 있다.

⑤ 내가 들으란 듯이 크게 웃는 점순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약이 올라 수탉을 붙들어 집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④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에서 점순네 닭을 죽이고 정신이 들자 집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울음이 터졌음을 알 수 있다.

① 닭싸움에 눈 깜짝하지 않는 점순이의 모습을 보고 소문과 달리 눈깔이 여우 새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② 점순네 닭을 죽인 직후 점순이의 울음소리가 아닌 점순이의 매섭게 뜯은 눈에 놀라 나자빠졌다.

③ ‘나’는 점순네 닭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닭을 죽인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나’의 닭을 보고 분노하여 헛김에 점순네 닭을 죽인 것이다.

⑤ 점순네 닭이 아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나’의 닭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이다.

11. **정답** ③

㉠에서 내가 예전에 점순이와 친하다고 생각한 것은 알 수 없다.

①, ⑤ ‘나’는 예전에 점순이가 소문대로라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더욱 치가 떨린다”에서 알 수 있듯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②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에서 점순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지만, 현재는 닭싸움을 붙이는 영악한 계집애라고 판단한다.

④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깐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에서 점순이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가 드러난다.

12. **정답** ⑤

‘나’는 어수룩하면서도 눈치가 없어 끝까지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점순이가 의도적으로 ‘나’의 어깨를 떠다민 것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 ‘나’는 눈치가 없고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① 점순이와 ‘나’가 동백꽃 속에 파묻히는 장면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촉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동백꽃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맞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닌 ‘농촌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나)에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터냐?”라는 점순이의 물음에 ‘나’가 영문도 모르고 무턱대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지만 하얀 동백꽃이 아닌 노란 동백꽃이 한창 피어있는 것이다.

13. **정답** ②, ③

(나)는 나흘 전에 ‘나’에게 점순이가 말을 걸고 감자를 준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나’와 점순이는 원래 아는 사이이며 나흘 전에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 (다)에는 내가 점순이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로 소작인과 마름이라는 두 집안의 관계가 서술되어 있다.

① (가)에는 현재 닭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나’와 점순이의 갈등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 갈등 해소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 나흘 전에 점순이가 준 감자를 ‘나’가 거절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라)에서 ‘나’와 점순이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⑤ (라)에서는 ‘나’에게 화가 난 점순이가 ‘나’ 대신에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14. **정답** ④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에서 나는 점순이와 싸웠을 때 자신의 형편이 불리함을 알고 있다.

① (가)의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에서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나’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점순이의 행동을 생이질(한창 바쁠 때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점순이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③ (나)에서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을 생색 있는 큰소리라고 말하고, (다)에서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름을 알 수 있다.

⑤ (라)의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네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를 보면 ‘나’는 점순이가 계획적으로 씨암탉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15. **정답** ③

㉞에서 ‘나’는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감자를 거절한다.

① ㉠: “오늘도 또”에서 점순이가 닭싸움을 처음 붙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 ‘나’는 감자를 주는 점순이의 말이 아닌 닭싸움을 붙이는 점순이의 행동에 화가 난 것이다.

④ ㉣: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⑤ ㉤: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을 통해 점순이가 의도적으로 내가 내려오는 곳에서 닭싸움을 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정답** ⑤

<보기>의 서술자는 사건의 진행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심리까지 모두 꿰뚫어 보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이다. <보기>에서 서술자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용수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본 용수는 닭이 고추장에 맛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와 같이 용수의 생각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① 주인공인 ‘용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이는 (가) 서술자의 특징이다.

②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닌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뀌었다.

③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한다.